

## ⑤ 朝鮮古代觀測記錄調查報告 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

1917년 / 조선총독부 / 200면 / 13,10-03 조53조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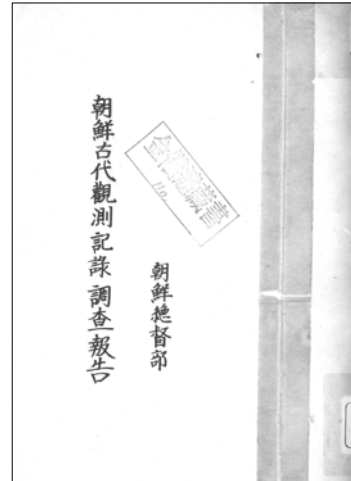
1917년 7월 조선총독부 관측소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는 당시의 관측소장이었던和田雄次(와다 유우지) 박사의 연구 결과물이다. 총 200면으로 된 이 보고서는和田(와다) 박사 퇴임 후 이 방면 조사를 촉탁받아 이룩한 성과, 즉「古代觀測調査補

遺(고대관측조사보유)」와「最近 百四十年間 京城雨量(최근 140년 간 경성우량)」,「朝鮮에 있어서의 霾(황사)에 대하여」와 關口(세키구치) 박사의「朝鮮古記錄中の 慧星과 流星(조선 고기록 중의 혜성과 유성)」에 관한 보고서를 합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와다 박사가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고기록(古記錄)을 섭렵하여 발췌한 것인데 세종 24년(1442년)에 제작한 우리 측우기(測雨器)가 세계 최초의 측우기란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서양이 1639년에 우량관측을 시작하기보다 200년이 앞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비록 복사본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토에 관한 기본 사항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자료다.

와다 박사는「風雲記(풍운기)」,「天變抄出騰錄(천변초출등록)」,「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日省錄(일성록)」에서 서울의 최근 140년 간의 우량(雨量) 통계를 작성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



면 삼국(三國)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약 2000년 간 지진일수가 1,661일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집이 넘어지거나 사상자가 발생한 정도, 즉 강진(強震) 횟수를 보면 삼국시대 992년 간에 11회, 고려시대 456년 간 4회, 조선시대 519년 간 26회나 있었다.

지금 서울에는 내진설계(耐震設計)가 되어 있는 건물이 필자가 알기로는 삼성 본사를 비롯하여 열 손가락을 꼽기도 어려울 수준이다. 만약 앞으로 우리나라에 등급(magnitude) 6 정도의 지진이 온다면 아파트는 물론 대부분의 고층건물이 무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봄철이면 시작되는 황사 현상은 흔히들 최근에 비롯된 자연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B.C. 34년부터 근 2000년 간 우리나라에 250여 회의 황사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와다 박사는 황사 현상의 고증으로 『三國史記(삼국사기)』, 『文獻備考(문헌비고)』, 『高麗史(고려사)』,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과 『天變抄出謄錄(천변초출등록)』 등을 활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경주의 첨성대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도 기술하고 있다.